

창간기념특시

이 첫 울음 소리만큼 비벼대 어여쁠 수 있으리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옛 마가다나라 서울 라자그리하
 그곳에서 어울림 무소 한 마리 따라
 이어서 풀랑 조랑말 한 마리 따라
 땀범벅으로 올라갔다
 빙비사라왕이 수레 버리고
 허위허위 오른 그 길
 부처님 뵈기 위하여
 오르고 오르고 오른 그 길
 그리하여 빙비사라의 길 백팔계단을 올라
 비바람막이 가십글 아란글 돌아
 돌림 모자 벗겨 날아가며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향실이라
 심도 이후
 으름으로 무르녹은 법 필치신 향실이라
 영경취 치다리선인장
 열키실키 가시나무
 온갖 관목들 어우러져
 바위덩어리
 바위너실 사나우 곳
 그러나 가장 착박한 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곳
 독수리봉 꼭대기 향실이라
 차라리 버려놓을 밤이면
 희익 퍼버리는 향실이라

일체중생의 기쁨이 내 슬픔 아니었던가
 여기 독수리봉 바람소리
 몇천년의 바람소리
 그 가운데 서서
 저 아래 왕사성을 내려다 보거니와
 지난날 큰 심문 32개
 작은 심문 6개
 여러나라 사람과 짐승이 드나드는
 그 장엄한 시대를 내려다 보거니와
 저쪽으로는 가야
 저쪽으로는 카시
 첫 설법의 녹야원
 반야부 설법의 기원정사
 저쪽으로는 코살라
 저쪽으로는
 저쪽으로는 설산 다올라거리
 어린 싯다라라가
 항상 광꾸던 진리의 설산
 고향 가바라에서
 하늘가 아득히 솟아오른 설산 다올라거리
 그런가 하면 40년 세월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이 고장 저 고장
 이 강 저 강 건너 떠돌며
 그때 스스로 부처이므로
 나 혼자 부처 아님을 감절히 가르쳐온 바
 수많은 숲과 도시와 두며를 내려다 보거니와

사바세계를 거느리는 1만2천과
 물 속의 용들 몇백 몇천도
 아니 어느 권속도
 어느 권속도
 라자그리하 왕도 와 있으며
 출가 재가 4부중 대희상
 여기 영산회상을 이루었으니
 장엄하도다
 장엄하도다
 하늘이 만다라꽃 만수라꽃 꽃비 내리고
 부처님 눈썹 사이
 눈부신 빛 놓아
 동서남북 1만8천세계
 그 아래 아버지
 그 위 아가니라천에 이르기까지
 6도중생 일체중생을 다 비추이니
 여기가 보살의 길 열리는 곳 아니냐

비로소 한 사람을 이롭과 같이
 한 소식을 이루어
 현대불교 이 이름이니
 이 이름 불러들여
 이 이름 품고 가지하건대
 문득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여
 문득 구름 비벼대 흩어지고
 일체망상이 사라짐이여
 주인공아
 그대 벗속의 씨 찾아내 보여라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저 아래 동서남북
 우뚝우뚝 자라나는 들과 나무마다
 진리의 꽃 피워보아라
 그리하여 하늘에 꽃비
 땅에 꽃덤불이라
 오늘 새로 피어나는 꽃
 오늘들의 불교
 현대불교 펼쳐 보아라
 저 2천5백여년전의 길
 빙비사라의 길 내려오며
 진리란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까지
 파도쳐 넘치지 않고
 파도쳐 줄지 않음이니
 여기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그 소리 소리 소리로
 그 진리의 소리로 큰 서원
 큰 행실의 한마음 살림이니
 이 아장아장 걸음마
 자람 아기
 이어 출무성한 처녀총각
 시퍼런 젊음
 그리하여 경륜
 정정한 노장의 소나무로
 백년 천년의 법 수레 구름임이니
 보소리 보소리
 활짝 펼쳐 열린 큰 길 양양하리라
 다시 한번 올라서서
 여기 바람소리
 귀 가다듬어 들어 보아라
 함께 나아가길
 바람과 함께
 그대와 나의 신심과 함께
 끝간에 모드로록 나아가길 양양하리라

여기 올라 들어보았는가
 귀 가다듬어
 2천5백년 전의 바람소리 들어보았는가
 아니 2천5백년 뒤
 오늘들의 바람소리 옷 벗어 들어보았는가
 이 세찬 바람 속
 부처님 여돈살의 목소리
 소리 없는 소리 들어보았는가
 귀 없는 귀로
 눈 없는 눈으로
 마음 없는 마음으로
 듣고 보고 지극하게 받아들였는가
 석가나 아미타나 쫓이나
 일체중생과 어우러져
 여기 광박 놀라 정토 이름이여
 어찌 이광인가
 일찌기 부다가야 새벽의 기쁨 가슴에 품고
 그 기쁨은 언제나
 일체중생의 슬픔이었고

다섯사람의 수행자가
 어느덧 1만2천의 출가재자로 불어나
 여기 독수리봉을
 새 때처럼 뒤덮었으며
 또한 유식관 무식관 2천과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녀의 권속 6천과 더불어
 벌나비떼처럼 뒤덮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께서도
 그녀의 권속을 데리고
 하늘 속 드높이 펼쳐오르는
 그 바람소리 듣고 있었거니와
 보살마하살 8만이 다라니 경지 이루었으며
 또한 하늘 속 인드라천도
 그의 권속 2만과
 4천왕 권속 1만과
 자재천 대자재천 권속 3만과

오늘 독수리봉 꼭대기 바람소리
 여기 동아시아 한반도 북판에 이르러
 2천5백년전의 바람소리
 2천5백년뒤의 바람소리 이어져
 이 바람소리 새차
 마치 그때와 한때이듯
 이 바람소리 새차서
 마치 그곳과 한 곳이듯
 여기 동아시아 한반도에 이르러
 오늘들의 불교 거들거들 태어나
 현대불교의 아기로 태어나
 그 진리의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로 태어나
 이 세상 어느 곳인들
 이 첫 울음소리만큼
 비벼대 어여쁠 수 있으리
 이 첫 울음소리만큼
 용여움에
 숙연할 수 있으리
 그저 한갓 울음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끝추 필 울음소리로
 자비를 널리 펼 울음소리로
 더 없는 지혜 필 울음소리로
 발원하건대 발원하건대
 여기 영원한 생명실상과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동굴계 돌아서

창간기념특시



생명의 불교 ①

“억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

지구상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배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무한히 값진 보배가
 우리들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우 리들 누구에게나 만물의 영장답게 위대한 지혜의 힘,
 빛나는 능력이 주어졌다.
 늘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듯이,
 줄리면 잠자고 배고르면 밥 먹고 하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 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나의 근원으로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는 고통과 갈등이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다면 비록 억만장자일지라도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는 거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나의 근원을 밝히는 길,
 그것이 곧
 불교이다.

그 것을 일컬어 부처님 성품이
 라고 한다.
 이름하여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주인공은
 우리 모두의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이름, 다른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능력면에서는 한 치의 차별도 없이 똑같다.



“맑은 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날 수도꼭지에서
 시뻘건 녹물·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보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송수관이 녹슬거나 망가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원PE 파이프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 공급엔 동원PE 파이프가 적격입니다.

동원PE 파이프의 특성

- 위생성**
 무독·무취하므로 물맛의 변질이 절대로 없어 식수·온천수 배관에 최적이다.
- 내식성**
 부식·전식이 전혀 없어 관식이 생가지 않고 녹물·오염의 염려가 없다. 비닷물 배관에도 적격이다.
- 내약품성**
 산·알칼리·염분에도 침식되지 않으며 해조류나 박테리아 등 세균류가 번식하지 못한다. 술폰 등에도 매우 강하다.
- 경제성**
 자재비가 저렴하고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이며 시공이 간편해 다른 자재보다 매우 경제적이다.
- 내한성**
 영하 80℃까지 온도변화가 없어 혹한기에도 동파의 염려가 전혀 없다.
- 유연성**
 신도가 500% 이상으로 매설 후 지반변동이 심해도 파열·균열현상이 없고 따로 열보 이음관을 쓸 필요가 없다.
- 기타**
 관 내면이 매끄러워 흐름이 좋고 용적이 원벽에 걸 단 이전 상태와 같은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찰손실, 누수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동원PE 파이프의 용도

- 송배수관/급수관/소화전/LNG·LPG 등 가스배관/저중선 보호관/육내 전선배관/해수인입배출관/농업용수관/간척지 배관/스프링클러 용/골프장 송수관/유류·화학약품 송수관/생태 공기순환 덕트/토사 등 수송관/기타

폴리에틸렌 파이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동원 (株) 東原프라스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00-1 14층 96305
 TEL 02-588-3476/8-4546/7 FAX 02-588-9470
 공장: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린리 304-1
 TEL 063-856-8335 FAX 063-856-8337